

NPC, Shell · Basell과의 합작 결렬

NPC 단독 110만톤 크래커 건설 ... HDPE · MDPE · EG 플랜트도

Shell 및 Basell이 2003년 9월 말 이란 Bandar Imam 석유화학 프로젝트에서 철수함에 따라 NPC(National Petrochemical Co.)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.

NPC 및 Shell, Basell은 Olefins 8(Aspire)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검토 이 후 합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. 3사는 프로젝트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차로 합작이 결렬됐다고 밝혔다. NPC는 2006-0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Shell은 목표 완공시기를 밝히기를 거부했다.

2002년 BP는 수요약세 전망에 따라 NPC와의 이란 Bandar Assaluyeh 소재 올레핀 9 콤플렉스 합작건설 협상에서 철수했다. 이후 Sasol이 BP를 대신해 협상에 나섰다.

Olefins 8 콤플렉스는 에탄(Ethane)계 에틸렌 110만톤 크래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HDPE(High-Density Polyethylene) 및 MDPE(Medium-Density Polyethylene) 35만톤 플랜트 및 EG(Ethylene Glycol) 35만톤 플랜트를 포함한다.

NPC는 10월 중순 Technip 및 ABC Lummus Global, Linde 등이 에틸렌(Ethylene) 플랜트의 엔지니어링 및 장비조달, 건설계약 수주 경매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Basell은 NPC와 이란 Bandar Imam LDPE(Low-Density Polyethylene) 합작 프로젝트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. Basell의 Lupotech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능력 32만톤의 LDPE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Basell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게 될 전망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31>